

평가·보상 갈등에 무너진 ‘무노조’… SI업계 노사관계 재편

삼성SDS, 성과급제도 개편 불만 제기
현대오토에버, 평가 체계 개선 요구
LG CNS, 노조 설립 직원의견 수렴중

‘무노조’ 기조를 유지해 온 대기업 시스템 통합(SI) 업계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삼성SDS를 시작으로 현대오토에버, 신세계아이앤씨까지 창사 첫 노동조합이 잇따라 출범하면서다. 그 동안 경영진이 주도해 온 평가·보상 등 노사 간 의사결정 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에서 창사 41년 만에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어 현대오토에버와 신세계아이앤씨도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노조가 설립됐다. 이달 들어 세 기업 모두 무노조 기조를 깨고 공식적인 노사 협상 장구를 마련한 것이다.

삼성SDS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구성원 반발이 계기가 됐다. 기존에 현금 인센티브 성격(PI)의 성과급을 폐지하고 자사주로 지급하는 보상 제도를 추진



이준희 삼성SDS 사장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삼성SDS 프라이빗 부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성SDS

했다. 연봉의 20%를 기준으로 당해 세금 공제 전 영업이익 증가율과 주가 수익률에 따라 실제 지급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은 경영진이 성장성이 높은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삼성SDS의 지난해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15% 이상해 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IT 서비스에서는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주식 보상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 프로젝트 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다.

다만 임직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 지급 방식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동의율은

40.0%에 그쳤다. 과반이상의 임직원들이 주가 변동성과 퇴직금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혀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이후 보상체계와 인사제도 결정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누적되며 지난 6일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다. 현재 임직원 1만1000여명 중 조합원 6000명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가와 연동한 보상 체계는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의 실적과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하거나 주식 시장이 약세한 경우 실질적인 보상 규모가 감소할 수 있고 이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8일 전국화학산업 유제품노조 산하 지회 형태로 노조를 설립했다. 현재 인사평가·보상 기준 공개와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 제도 변경 시 노사 합의 등 전반적인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축소와 불투명한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과 평가 체계에 대한 공정성 지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같은 날 공식 활동에 들어간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는 일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구성원 의견 수렴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게 계기가 됐다. 특히 그룹 시스템 운영·관리(SM) 체계 개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업무가 외주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와 함께 국내 SI 시장을 양분하는 LG CNS는 노사협의기구인 ‘노경협 의회’를 통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SK AX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으나, 현재까지 회사와의 주요 교섭 주체로서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약 35%로 전체 평균의 약 3배 수준인 반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총 조직률은 7% 넘지 못해 규모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메타, AI 인프라 베팅… 1450억달러 투자

오늘 AI

9월 자체 AI 칩 ‘아이리스’ 양산
내년 AI 인프라 규모 2배 확대

AI 인프라 과잉 투자 논란의 중심에 선 메타가 오히려 투자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다. 남은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메타 컴퓨트’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 시장에 AI 투자 둔화 우려를 키웠지만, 실제로는 자체 AI 반도체 양산과 초대형 데이터센터 증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AI 인프라 경쟁에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11월 IT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오는 9월 자체 개발 AI 가속기 ‘아이리스(Iris)’를 양산할 예정이다. 아이리스는 메타의 AI 반도체 플랫폼인 MTIA 계열의 차세대 칩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추천 시스템, 생성형 AI 서비스의 추론 작업에 활용된다.

이는 모든 AI 연산을 자체 칩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기보다 AI 서비스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에는 엔비디아와 AMD의 GPU를 계속 활용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AI 추론과 추천 알고리즘은 자체 반도체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AI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날수록 추론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비용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확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AP·뉴스시스

하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메타가 AI 경쟁의 축이 ‘모델 개발’에서 ‘서비스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I 모델의 성능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상황에서 실제 서비스를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는 칩 개발 주기도 대폭 단축한다. 일반적으로 AI 반도체는 1~2년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되지만 메타는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 6개월 안팎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칩 설계는 브로드컴이 맡고 생산은 TSMC가 담당한다.

반도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투자도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된다.

메타는 올해 약 7GW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

를 14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원전 여러 기의 발전 용량에 맞먹는 전력을 사용하는 초대형 AI 인프라다. 글로벌 빅테크 가운데서도 가장 공격적인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 중 하나로 평가된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맞춰 핵심 부품 공급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메타는 삼성전자와 메모리 반도체, 샌디스크와 플래시 저장장치, 스미토모전기과 광통신 장비 등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타가 삼성전자로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받는지, 일반 서버용 D램을 공급받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HBM보다는 서버용 메모리와 저장장치 등 AI 데이터센터 전반에 필요한 부품 공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메타는 올해 자본지출(CapEx) 전망치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다. 서버와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포함한 올해 투자 규모는 최대 1450억 달러에 달한다. 메모리와 반도체 가격 상승, 향후 데이터센터 확보 비용 등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시장에서는 메타가 자체 컴퓨팅 자원을 외부 기업에 판매하는 ‘메타 컴퓨트’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인프라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에서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KT 박윤영 대표(맨 앞 가운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KT, 외부 전문가 영입… 정보보호 체질 개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

KT가 중장기 보안 전략을 수립할 외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정보 보호 체질 개선에 나선다.

KT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 전문가 협의체다. 정보 보호 전략과 주요 정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전문가 구성은 정책·제도,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AI·제로트러스트 분야 등 다양하다.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박준식 이사, 청주대학교 정은수 디지털보안학과 교수, 아주대학교 객진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윤명근 인공지능학부 교수, 경희대학교 박철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흥선 고문, 법무법인 세종 최광희 고문 등이다.

핵심 자문 영역은 AI 보안,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이다. 내용은 AI 기반 공격과 생성형 AI 악용 등 미래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과 AI 보안 기술 도입 및 활용 정책 등이다.

/조민선 기자

LGU+, 차세대 통신 품질 국제표준 제안

통신 지연시간 150ms 이내로 관리

LG유플러스가 차세대 보안 환경에서도 통신 품질을 유지하는 국제 표준 개발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양자 보안 통신의 품질 관리 기술 개발 방향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은 차세대 보안 통신 환경에서 품질 관리 기술을 표준화하는 과제를 채택했다. ITU-T는 전 세계 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로 산하 조직(SG13)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 서비스와 품질 등 연구한다. 국제 표준은 회원국과 회원사 간 협의를 통해 개발된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회의에 참석했다.

회사는 행사에서 아이오티커뮤니케이션즈와 공동 개발한 ‘지연 관리 품질 관리 기준’을 제안했다. 통화 품질 유지 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지연시간을 약 0.15초(150ms) 이내를 목표로 설정한다는 설명이다.

궁극적으로 양자내성암호(PQC)와 양자키분배(QKD) 등 차세대 보안·암호 기술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조민선 기자

독일 달군 K-콘텐츠… 유럽 공략 본격화

코트라, 독일서 체험관 운영 성료

최근 독일에서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웹툰과 캐릭터 지식재산권(IP) 상품까지 인기를 끌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유럽 시장 공략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 머물던 한류가 굿즈와 문구, 식품 등 실물 소비로 확산되

며 K-콘텐츠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정보기술(IT) 및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0일부터 아틀란(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K-포켓에서 ‘2026 독일 K-콘텐츠 체험관’을 운영했다. 최근 독일에서 K-웹툰과 웹소설, K-팝,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체험관에는 웹툰과 캐릭터 등 자체 IP를 보유한 국내 기업 7곳이 참가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작품 세계관을 반영한 체험형 공간과 포토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캐릭터 굿즈 및 식음료 등을 선보이며 현지 소비자들 한국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빛나 기자